

사설

바흐나 테오도르 루즈벨트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바흐의 마태수난곡, 복음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다룬 종교 음악이다. 1729년 4월 15일 초연되었다. 그 후 까마득히 잊혀졌다. 그러다가 1829년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발굴되고 초연되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초기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다.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다. 지휘자이기도 했다. 바흐나 멘델스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악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중·고교 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흐가 처음부터 대음악가로 추앙받은 것은 아니다. 대음악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사후인 19세기다. 그야말로 100여 년이 지난 뒤다. 때문에 생전에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빼졌을 뿐이었다. 장인의 정신으로 알아주든 않든 간에, 이게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아닐까.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여 년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대중의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감동을 주고 있다.

요즘의 출생력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복장 터져 죽을 일 일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세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쪼그만 재능만 있어도 난리다. 안달이다. 타인이 보기엔 그저 풋내기일 뿐인데도, 감으로 말하면 겨우 6월 초순경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때는 뽕은맛도 제대로 들지 않을 시기다. 그런데도 매우 달다고 우겨대면 될까. 그야말로 공해가 아닐 수 없다. 예술계 쪽만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기타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치인들을 봐보라. 참으로 가관이다. 철면피다. 자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교파이다. 날마다 독설을 난무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이름을 너무도 많이 도용하는 것 같다. 자신의 하찮은 것은 침소봉대해도 타인의 재능은 아무리 높아도 묻어버린다. 험뜯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갑남을녀도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가장 미움 받는 부류들은 정해져 있다. 제멋대로인 사람, 돈 버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사람, 화제가 직장 이야기밖에 없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등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면피 스타일이다.

반면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쪽인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생에 적극적인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는다. 험뜯지도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인정해주시지 않더라도 일에 몰두한다. 이런 부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고쳐나간다.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아한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가 될 어찌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의 몫이다. 앞서면 이길 것이요, 뒤지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했다 해도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진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미국의 26번째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말이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대학시절에 의사의 강력한 권고도 받았다. 조심조심 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았다. 곰 사냥을 즐기면서도 임신했던 곰, 병약한 곰 등을 가려서 했다. 자연 친화가가 가미된 인간적인 면이다. 바흐처럼 소신껏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이 다. 주어진 사명감을.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독신으로 살다 간 철학자들이 더러 있던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대개의 철학자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한 그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 특이한 입장을 취했던 철학자들이 있다.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기원전 6세기)는 일식(日蝕-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예언하였으며, 기하학을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결혼시키려 하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 후, 나이가 들어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라고 더욱 재촉하자 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결혼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에 "왜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에 대한 대답은 더욱 의미가 깊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문답 같기도 한 이 말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사실 그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 걱정이 앞선다. 과연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자라는 도중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강성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버 강성철 철학터미



철학자와 자녀(1)

라 없으며 여러 자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도 부지기수이다.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생겼을까? 차라리 자녀가 없다면, 근심걱정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고생고생하며 애써 돈 벌 필요도 없다. 내 한 입 해결하면 끝난다. 한 세상 편하게 살다가 세상 하직하는 날, 훌쩍 떠나면 된다.

그러기에 탈레스가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말 속에도 일리는 있다. 물론 다른 설도 있긴 하다. 탈레스가 결혼하여 '큐비스토스'라는 아들을 얻었거나 결혼하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한 건

사실이지만 누이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설 등.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또 다른 이유로 자식이 없었는데, 우선 그는 자신이 육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몹시 부끄러워하였다. 그 때문에 자신의 출생, 부모, 고향에 대해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고, 영혼이 육체에 들어온 날인 생일조차도 비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건', 즉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초상화를 절대 그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까닭에 대해 플로티노스는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초상화란 거짓 그림자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만큼 하

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제자 아멜리오스는 친구인 화가를 강요실에 몰래 들여보내 스승의 모습을 기억시킨 다음, 다른 장소에서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다고 한다.

육체를 극도로 멸시한 플로티노스는 병에 걸려도 약 먹기를 거부하였고,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도 위 세척을 거절하였다. 음식의 양을 너무 많이 줄였고, 준비해둔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조차 자주 잊어버렸다. 불면증까지 얻게 된 플로티노스는 알아누운 채 아위에 갔다. 나이가 들어서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손발이 굵아 터지기 시작했다.

플로티노스가 이처럼 육체를 학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에 의하면, 물질에 해당하는 육체는 영혼에 비해 한없이 낮고 비천한 것,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 생일을 기념하는 일, 육체를 그려 보관하는 일 등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플로티노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자식이 없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매년 여름철인 7월부터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며, 연평균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벌 쏘임은 가벼운 통증과 부종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를 줄이기 위

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벌은 어두운 색상이나 꽃무늬 옷에 끌리므로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향수, 로션, 달콤한 음료 등은 벌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거나 소량만 사용한다. 벌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 장갑, 긴소매 옷,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집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나 음료 캔을 정기적으로

치우고 투기가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 벌 유인을 방지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신용카드나 손톱으로 벌침을 긁어내어 제거한다. 손으로 뽑으면 벌이 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쏘인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얼음팩으로 부기를 완화한다. 벌 쏘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의사 처방에 따라

에피네프린 주사(에피펜)를 상시 휴대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한다. 숨쉬기 어려움, 어지럼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는 개인의 주의와 환경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과 준비를 통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을 만끽하자.
해남소방서 소방과 김진오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음력 7월 3일)

- 48년생 잔수성간음식손과 입이 비뚤진다. 60년생 길이 강한 제안어 깨동무 해보자. 72년생 구해진 대점 비단 옷이 걸려진다. 84년생 애강 태우면 허락이 떨어진다. 96년생 혼자의 생각 여지 없이 틀려진다.
51년생 일화일비 없는 우직함을 지켜내자. 63년생 까르르 웃음이 울타리를 넘어선다. 75년생 그간의 신묘가 급한 불을 꺼준다. 87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상을 기대해보자. 99년생 든든한 동지에게서 꿈을 만들어보자.
54년생 급하다 서두르고 계획은 앞당기자. 66년생 늦게 오는 번을 기다림을 더해보자. 78년생 중무장은 기본 거친 승부해보자. 90년생 어떤 선택에도 행운이 따라온다. 02년생 금경의 기운으로 위와 의해보자.
57년생 사든 집 사에도 경단을 맞춰주자. 69년생 훌륭한 성적표로 시험을 마쳐보자. 81년생 멀리 있는 미래 시간을 투자하자. 93년생 비어있던 가슴에 사랑이 채워진다. 05년생 애써 하는 행동 겸수로 매겨진다.

- 49년생 다투자 하는 사비 출렁이 답이다. 61년생 몸이 피곤해야 원하는 걸 얻는다. 73년생 급하면 체한다. 침표를 찍어내자. 85년생 버리면 낭비다. 일들하게 챙겨보자. 97년생 좋다 하는 고백 농담으로 대신하자.
52년생 앓는 소리 나오는 부탁이 들려온다. 64년생 대담 없는 메아리 이 별의 수순이다. 76년생 관사 데 쿨노래 기본전환 해보자. 88년생 도전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 100년생 여럿이 함께 같은 꿈을 향해 가자.
55년생 가격과 무관하게 진짜를 가져오자. 67년생 다시 보는 확인 욕식을 가려내자. 79년생 크고 작은 변화의 일로 해야 한다. 91년생 소금같은 존재 찾는 곳이 많아진다. 03년생 용기와 독심으로 반대를 넘어보자.
58년생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을 가져보자. 70년생 자나친 호의 간섭으로 보여진다. 82년생 필요했던 도움이 제발로 찾아온다. 94년생 고민은 짧게 실천으로 옮겨보자. 06년생 다른 뜻대로 인연 서로를 알아보자.

- 50년생 늦게 만난 연인 애뜻함이 더해진다. 62년생 안색의 숨겨진 경쟁에서 이겨내자. 74년생 절대 긴장 마음의 끈을 놓아내자. 86년생 미운털이 베풀어도 할 말은 해야 한다. 98년생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다시 하자.
53년생 별천지가 따로 없는 호시를 누리보자. 65년생 분위기를 타고 사랑을 속삭여보자. 77년생 오래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 89년생 적당 한 허세로 관심을 받아내자. 01년생 여가 지기 귀동냥 완성이 되어간다.
56년생 열광 가득 꽃같은 미소가 그려진다. 68년생 달라지는 법이 없이 앞만 보고 가자. 80년생 미리 하는 준비 넉넉함을 가져보자. 92년생 완벽 한 자선가 날개를 펼쳐내자. 04년생 아름다움 다룬 감동 하리쉬여 받아내자.
47년생 혼하고 낯은 것을 소중히 지켜내자. 59년생 골고랑 당기던 거래도 경이 찍혀진다. 71년생 추후적인 지출 금방 후회한다. 83년생 의무는 넘치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95년생 거짓이 아닐까 의심됨을 차야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